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 하느님의 「가난함」을 살자 파트 2 ~

교오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

■ 교황 프란치스코의 호소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목으로 헌신해 온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취임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자」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기본은 선교자가 스스로 알리는 복음을, 스스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빛, 복음에 근거하는 겸손, 교황으로서의 검소한 생활로 가까이 다가가기 쉽게 거동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현대의 그리스도교는 세계가 빈곤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구제되는 종교로 팬찮은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에 놓여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은, 교황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일체감과, 교회쇄신에의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아 가는 자세, 활력이 있는 출동 태세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쾌적한 장소에서 나가서 복음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삶의 고통에 놓여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용기를 가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20 참조).

교오토교구의 우리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하여 더 가난한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영성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은, 물질적 가난함으로부터 고찰했으므로 올해는 정신적·영적인 가난함으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2014 년 가톨릭중앙협의회)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난함 안에서 하느님께 의지하자.

[신앙의 인격적 감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갈릴레아 호수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시작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압박받아 무력한 존재가 되고,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의 논리로는 약자와 패자로 간주되어 기쁨이 전혀 없고,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마음에 여유도 편안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이, 같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던 가난한 농민이나 어민들이 예수님께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고, 원문에서는 감탄문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라고 외쳤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하느님께 축복받고 있다. 하느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감동하시면서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 대부분은 조국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제국에 반항도 못하고, 구원을 원하면서도 대단한 율법주의자 바리사이파와 같이 모든 계율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축복받은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많이 놀랐을거라 생각합니다.

마태오복음서의 산상설교로「가난한 사람」에게 붙는 새공동번역의 「마음의」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그리스어에서는 「영에 있어서」라고 하는 말이므로「영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회 번역에서는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라고 되어있습니다. 루카복음의 평행구절(루카 6.20~26)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그대로 물질적으로 표현되어 풍부한 사람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고 하느님께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으로 족하다. 아니, 그게 좋다. 너희들이야말로 아버지 하느님의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라고 격려하고, 하느님계의 완벽한 신뢰를 가지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가난함이 불러올 수 있는 정신적,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하느님의 대한 신뢰를 꼼꼼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 2. 자신의 무력함을 알아 차리자.

[신앙의 발견적 감각]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의 체제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다. 지상의 부나 권위에 의존하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느님에게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 가기가 어렵다. 거둬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단언하셨습니다(마태오복음 19.23~24). 돈이나 부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의존시키는 이 세상의 부는, 인간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는 성다미아노성당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프란치스코, 가서 나의 교회를 다시 세워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해서 교회의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보수란, 그리스도가 가르친 가난한 사람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유복하여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 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거부되어야 할 정신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적인 가난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자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해 집시다.

### 3.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자.

[신앙의 인식적 센스]

우리들이 자신의 가난함 속에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네만 옳을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리사이파와 세리의 비유를 들어「하느님, 죄인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세리를 칭찬했습니다.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 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군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루카 18.9~14 참조). 또,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작은 동전 두 닢을 넣는 것으로 보시고,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낌 없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녀의 신앙심을 칭찬했습니다(루카 21.1-4 참조). 자기 자신의 옳음에만 의지하는 바리사이파와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만족에 빠질 일 없이, 세리와 같이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겸손을 익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주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희랍어로 케노시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 되셨다.」(필립 2.6~7).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이 자신을 헛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현실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다음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맡겨 봅시다. 자신의 힘으로 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어서 무(無)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앞에서 오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겸손함을 청합시다.

### 4. 가난해진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배우자.

[신앙의 그리스도론적 센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참된 겸손을 익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 11.28~29). 마음의 가난함, 성령에 있어서의 가난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써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요로우셨지만, 자신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풍부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다(2 고린 8.9 참조). 이것이 하느님에 의한 가난함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자신을 무(無)로 되게 한 것은 자기의 내적인 풍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에 의해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버팀목을 완전히 필요로 하지 않았습시다. 즉, 자기의 내적세계를 떠받치기 위해서 어떤 권위도 물질적인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모든것에 있어서 풍부하게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란 하느님의 의지를 따르고 자신을 완전히 무(無)가 되게 하는 자기봉헌의 「가난함」이며, 그리스도의 「풍부함」이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 할 만큼 자기를 완전히 소유한다고 하는 「풍부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난함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실천하는 의욕은 하느님께 사랑받고,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활속의 실감으로부터 넘쳐 나오는 것 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앞에서의 「가난함」과 「풍부함」을 온화하시며 겸손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웁시다.

## 5.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부함을 서로 나누어 가지자.

[신앙의 성사적 센스]

우리들이 스스로 가난했던 예수의 겸손을 배울 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마태 6.24, 루카 16.13)이라 하는 예수님의 엄연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맘몬(mammon) (희랍어)」라고 하는 부(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의 영성을 사는 것은 이 맘몬(mammon)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안정, 성공, 권력, 명성을 추구하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인 것 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들 모두가 맘몬(mammon)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루카 16.13-15 참조).

그러나 그러한 부를 맘몬(mammon)이 아니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로도 돈 그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것이 「악의 뿌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1 디모 6.10 참조).

부(富)는 축적되었을 때에 악이 되므로 사랑의 마음에 의해 서로 나누어 가지면, 맘몬(mammon)인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로는 고린토의 사람들의 성찬식의 방식을 주의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몇 명만이 빵을 먹어버린다면 빵도 또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1 코린 11.17-34 참조). 그러나 빵을 쪼개어 평등하게 서로 나누어 먹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 먹고 행하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라고 바로로는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필요한 빵도, 사람들의 사이에 서로 나누어 가져지는 것으로 「사랑의 성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사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풍부함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서로 나누어 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부함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은총을 받으시다.

## 6. 보다 많이 바라는 것을 그만두자.

[신앙의 실천적 센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의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 입니다. 그것들을 자신만의 독점적인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집니다 (『현대세계현장』69 참조).

물적재산의 보편적 사용 목적의 원칙에 의하면, 물건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402~2406 참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를 가지는 것은 그 것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부를 가진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엄숙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이』를 획득해서 계승하고 있는 탓이며, 이 『보다 많이』는 가난한 사람과 서로 나누지 않는 한, 도둑 맞은 재산인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잉여소유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446 참조). 지금 세계로 확대되는 경제격차를 하느님께서 엄격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본인의 성공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그 때문에 보다 많이 소유하면 그것들을 우상화하면서 자신이 만족되어 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결코 충족되어 지지 않고 항상 보다 많이를 요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보다 많이를 바라는 것을 그만두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가난함의 실천입니다. 『노자』에 「족함을 아는 사람은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령 가난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풍부해서 행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마태 6.21). 부에 집착과 싸움, 보다 많이 바라는 것을 그만두면 자기의 허영심과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집니다. 마음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보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필립 2.3)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신앙인로서 보다 많이 바라는 태도를 항상 반성합시다.

## 7. 받기 보다 주자.

[신앙의 구체적 센스]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10:17-22 참조). 구원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은총의 선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 조건에 하나로서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회심은 「자신에게 뭔가 빠져 있다」라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알아차리 것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망의 차원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차원을 넘은 사랑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 가는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뭔가에 강제된 의무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초를 두고, 기뻐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 보이는 행위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자청년도 예수의 십자가상의 봉헌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다카야마우콘(高山右近)등 키리스탄시대의 신도들은 이나시오성인의『영신수련』에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신수련』의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실제의 가난함이며, 자신의 의사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이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확실히 몸소 실천 하였습니다(『영신수련』 98, 146, 147 참조). 그들은 영에 있어서 가난해지는 것에 의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태도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오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웁시다.

## 8. 불안을 받아들이며 살자.

[신앙의 통합적 센스]

인생에 불안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 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마태 6.25). 우리들은 무심결에 일상적인 일들로 고민합니다. 확실히 인생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며, 불안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태도를 취합니다. 불안이 무서우므로 무감정이 되든지 불안을 없애든지 미연에 불안을 막는 등 안심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안을 걱정하는 것 보다 불안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마태 6.26). 사람은 하느님이 만드신 귀중한 존재이며, 하느님으로 부터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믿을 때 하느님과 사랑 관계에 근거하는 안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자 마더테레사의 저 미소가 그것을 증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외적·물질적 버팀목이 없더라도 하느님께 의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사는 보람과 기쁨을 찾아냅시다.

## 9.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신앙

[신앙의 비판적 센스]

일본은 이전에 전쟁후의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고, 평성시대에는 버블 경기에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사회가 된듯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분야에 현실적인 물질주의가 침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현대인은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에서 가치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쾌적하게, 더 쾌락에 가득 찬 생활을, 그리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나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을 출세의 발판으로 해서 자기실현을 재는 것에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중심적인 부에 빠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중심의 자기만족과, 혼자만의 위로를 추구하기 위한 것만을 하느님께 더욱 청하는, 말뿐의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광에서의 유혹으로 맘몬(mammon)에 의한 세속적인 메시아에 의해 수많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마태 4.1-11 참조).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마태 4.4)이라고 대답하시고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몰이해와 굴욕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악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가난함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이란, 정적인 미덕과 같은 것이 아니고, 동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인 가난함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도전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 산다 하는 선택이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인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호소하시는 「가난한 교회가 되자」를 실천하기 위해 한사람 한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신앙을 청해 봅시다.

## 10. 이웃과 빈곤함속에서 일치하다.

[신앙의 공동체적 센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 가난하고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자기 자신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때 「주는 사람」과 「받는 것」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함은 우리들이 서로 위함으로써 일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됩니다.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나누지만, 더 이상 아무 것도 가지는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나눔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들이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낮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주는 것에 의해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난함 속에서 나눈다면 그 사람과 평등한 결연 상태가 되어 집니다. 이웃과 연대하는 것이 됩니다. 상호의 빈곤함이 사람들의 사이에 일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사도 2.44-45). 물질적 빈곤함을 한사람이 아니고 형제자매의 공동체에 있어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갖을 때, 그 삶의 태도의 결실로서 영적인 가난함이 공동체에서 공유되어 지는 것 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가난함이 따르지 않는 물질적인 가난함도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도자의 공동체나 소교구의 공동체도 자발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복음적 가난함을 각각의 의사로 계속해서 선택해 계속해서 감시다.

## 11. 겸손의 은총을 성령께 기도하다.

[신앙의 성령론적 센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1 디모 6.10).

바오로는 금전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을 잃는 것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가 하느님을 가지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또,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하느님의 눈에는 인간적인 부는 가치가 없는 가난함이며, 마음의 가난함은 하느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풍부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루카 4.18).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사명을 자각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 복음이 권유하는 가난함에 의해 매혹되어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난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에서 언제나 빈곤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하십시오. 가난함으로 이끄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가 아니고 성령의 재촉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생활속에서 가난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소유욕을 버리고, 금전에 대한 우상 숭배와 낭비를 그만 두고, 절제 있는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선택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의 가난함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합니다.

## ■ 마리아의 찬가

「가난함」이라고 하는 말 보다, 예수님의 태도, 선택,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쉬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우리들과 하느님의 관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우리들과 물건이 있어야 할 관계를 방침을 정하고, 더욱이 우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복음선교의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적인 가난함은 하느님 나라가 확대되어 지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복음의 기쁨』 중에서 현대의 복음선교는 기쁨이 퍼지는 것에 의해 처음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하느님의 행위에 기뻐하고 놀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부터 용솨음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루카 1.47-48). 마리아의 찬가(마니피캇)는 진복팔단을 사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이며 새로운 복음선교의 별인 마리아의 도움에 의해 우리들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